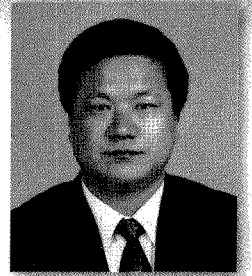


Pyracantha angustifolia

피라칸다

- ▶ 과명 : 장미과
- ▶ 학명 : *Pyracantha angustifolia*
- ▶ 영명 : Narrowleaf Firethorn
- ▶ 한명 : 火棘, 橘擬
- ▶ 일명 : たちばなもどき



최명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가시가 있는 상록관목으로 유럽 남서부로부터 히말라야와 중국 남부까지 6종이 분포하며,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도입되어 조경용수로 사용되어온 피라칸다는 중국의 서남부에서 도입된 종이다. 상록활엽수이지만 내한성이 강한 편으로 충남 이남에서 생육이 가능하며 품종에 따라서 중부지방에서도 월동이 가능한 종류가 있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정문을 들어서면 정면 언덕에 피라칸다는 매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지나가는 행인들도 황재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준다. 서울에서 월동은 매년 오는 추위의 강도에 따라 지상부가 고사하거나 잎만 떨어지는 해가 있으나 복서향이 가려진 곳에서는 의외로 완전하게 월동하기도 한다.

양수로서 햇빛을 좋아하며 그늘진 곳에서는 가

시가 성기게 나며 결실도 잘되지 않고 열매의 색도 곱지 않다. 줄기에는 강한 가시가 있으며 생장은 더딘 편이나 맹아지는 한해에 길게 자라기도 한다. 맹아력은 강한 편으로 강전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 피아리의 소재로도 적합하다.

중부지방에서는 잎이 떨어지기도 하며 높이 1~2m이고 가시가 있으며 가시가 많이 갈라져서 엉키고 수관이 둥글며 어린가지에 연한 황색의 털이 뽁뽁하게나며 회백색이고 끝이 둔하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꽃은 6월에 피고 지름 4~5cm로서 백색 또는 연한 황백색이며 가지 윗부분의 잎 겨드랑이에서 산방화서(繖房花序)가 발달하고 소화경은 짧으며 꽃받침의 겉부분과 더불어 회백색의 짧은 털이 있다.



꽃받침은 끝이 5개로 갈라지고 꽃받침잎은 넓은 3각형이며 꽃잎은 5개로서 도란형이고 때로는 끝이 파진다. 열매는 편평한 구형이며 지름 5~6mm로서 끝이 약간 들어가고 꽃받침이 남아 있으며 암색이지만 적색인 것도 있다.

모든 면에서 우수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어서 정원수, 산울타리, 분재, 꽃꽂이 소재로도 사용된다. 6월에 피는 꽃은 눈에 잘 띄지 않으나 가을에 맺어 봄까지 달리는 등황색 또는 적색의 열매는 관상 가치가 매우 높다.

번식은 종자번식과 삽목 두 가지로 할 수 있다.

종자번식은 가을에 익은 열매를 채취하여 과육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종자에 붙어 있는 발아억제물질을 깨끗한 물로 씻어 바로 파종하거나 노천매장하였다가 다음 해 봄에 파종하며,

삽목번식은 3월 하순이나 4월 초순에 전년에 자란 가지를 10~13cm 길이로 잘라 깨끗한 삽목 용도에 꽂는다. 여름철에는 그해 자란 햇가지를 10cm 길이로 잘라 꽂는데 발근은 잘되는 편이다. 🌱

